

내외 소식

브라운 선교부장 귀국

지난 3년간 4대 한국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브라운 선교부장이 7월 15일 오후 2시 30분 임기를 마치고 서북 항공기 편으로 귀국했다.

별로 말이 없는 실천가로 알려진 그는 재임 기간에 이땅에 시온의 스테이크가 생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선교부장은 가정의 밤, 가정 복음 교육, 계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이다. 한국에서의 말일성도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은 회원 모두가 가정의 밤을 갖고 가정 복음 교육을 실시하는 것 뿐이라고 기회를 때마다 강조하였다.

그분과 함께 봉사하던 어떤 형제는 브라운 선교부장이야 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이고 또 실제로 가장 가깝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귀환하는 선교부장 가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빈다.



2 와드, 와드 대회 개최

지난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서대문에 위치한 제2 와드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 고등 평의원, 구도자 및 회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훌륭한 와드 대회를 가졌다.

13일 오후 6시에는 상호 향상회 대회가 열렸는데 조 규영 감독과 고등 평의원의 말씀을 시작으로 서시 낭독, 다함께 노래 부르기, 연극, 고전 무용,



발레, 기악, 코메디 발표와 게임, 중창 발표, 민속 무용등 다채롭게 준비된 프로로 진행되었다.

또한 14일 안식일에는 9시부터 신권회와 상호 부조회가 10시 반부터는 주일학교 모임이 있었는데 특히 주일학교 모임에서는 전 선교부장이었던 팔머 부장 부처의 말씀이 있었다. 식사후 2시부터는 200여 성도가 모여 스테이크 부장단의 영적인 말씀을 들었다.



윤 화중 형제, 충남 대학교 교무 과장 취임



지난 7월 2일, 중부 지방부장단 제1 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윤 화중 형제가 충남 대학교 교무과장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7월1일에는 부교수로 승진하는 축복을 받았다.

윤 형제는 지난 72년 도미하여 브리감 영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물리학을 연구한바 있다.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 브리감 영 대학 제4 스테이크 아시아 지부에서 주일학교 교사, 장로 정원회 회장단 및 시간 선교사를 역임한 바 있다.

5 와드, 귀환 선교사 환영 노변의 모임 갖다.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30분 제5-와드에서는 귀환 선교사

를 환영하는 노변의 모임을가졌다.

박 길자, 이 병린 두 자매의 귀환을 환영하는 이 모임에서 조병하 감독은 그들을 "사랑의 종"이라 칭하고 형제들에게도 힘든 사업을 한 자매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5와드는 앞으로도 계속 복음 선교사를 배출하여 그 뒷바라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귀환 선교사의 간증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령의 인도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간증을 가지고 무사하게 봉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촌 지부, 기공식 갖다.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 동교동 언덕에 위치한 신촌지부 신축부지에는 약 90명의 성도가 모여 신촌지부의 기공식을 가졌다.

선교부장을 비롯한 스테이크 부장단, 고등 평의원 및 신촌 지부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약 2,000여평의 대지에 서게될 100평의 신촌지부 건물은 예배실, 상호 향상회실과 상호 무조회실, 과 공과 분반 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